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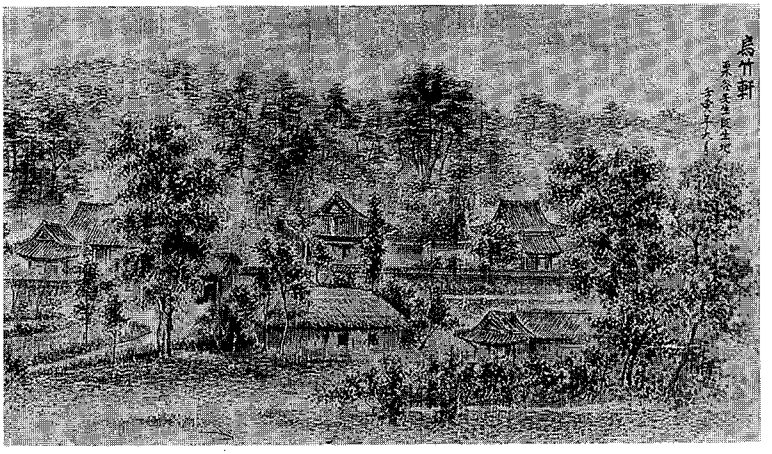
율곡의 생애

1. 어린 시절

검은 용의 탄생

율곡栗谷 이이李珥는 조선조 1536년(중종 31) 음력 12월 26일 아직 동이 트기 전인 이른 새벽 강릉부 북평촌(현재의 강릉시 죽헌동)에서 태어났다. 지금으로부터 약 470여 년 전의 일이다. 율곡의 아버지 이원수李元秀는 덕수 이씨로 충무공 이순신李舜臣과는 18촌 동항이었으며, 조용한 성품의 소유자로 너그럽고 겸손하여 옛 사람의 기풍이 있었다. 어머니 사임당師任堂 신씨는 진사 신명화申命和의 딸로 시詩·서書·화畵 3절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다정하고 고결한 인품으로 어린 시절 율곡의 인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율곡이 태어난 강릉 외가는 뜰에 검은 대나무烏竹가 무성하여 오죽헌烏竹軒이라 불리며, 율곡이 태어난 방을 몽룡실夢龍室이라 부



율곡이 태어난 오죽헌

른다. 율곡이 태어난 방을 몽룡실이라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율곡이 태어나던 날 새벽 사임당은 신기한 꿈을 꾸었다. 꿈에 검은 용이 동해 바다에서 침실 쪽으로 날아 들어와 마루 사이에 서리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율곡을 낳았다. 그리하여 율곡의 어릴 적에 현룡見龍이라 불렀으며 그 방을 몽룡실로 불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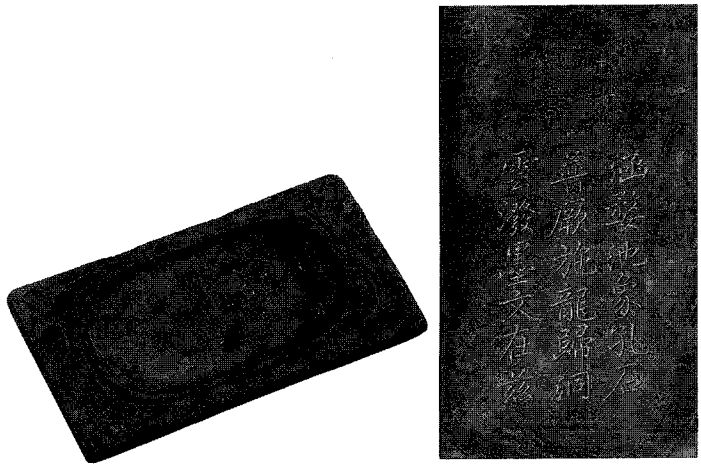
역사상 이름을 떨친 인물에게는 여러 범상치 않은 꿈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 율곡과 관련되어서는 이 꿈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백오포리에 살던 어느 봄날, 사임당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동해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파란 물속에서 선녀가 살결이 눈부시게 희고 오색영롱한 빛을 뿜고 있는 사내아이를 안고 나왔다. 그리고 선녀는 그 사내아이를 사임당의 품에 안겨 주고는 사라졌다. 이 꿈을 꾼 후 사임당은 태기가 있었고, 열두 달 만에 율곡을 낳았다고 하는데, 꿈의 내용은 물론 율곡을 열두 달 만에 낳았다는 점도 특별하다고 하겠다.

율곡과 용에 얽힌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하는데, 율곡이 어렸을 직접 꾼 꿈 이야기다. 어느 날 율곡은 꿈에서 천상에 사는 듯한 신비한 기운이 감도는 도인을 만났다. 그는 율곡에게 금 글자로 쓴 첩지 하나를 주었는데, 열어 보니 거기에는 시가 적혀 있었다.

> 용은 새벽 동천으로 돌아갔건만, 구름은 오히려 젖어 있고
> 사향노루가 봄 산을 지나가니, 풀이 저절로 향기롭다.
>
> 龍歸曉洞雲猶濕 麝過春山草自香

율곡은 꿈에서 얻은 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뒷날 율곡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세상 사람들은 '용이 돌아간다'는 말이나 '사향노루가 지나간다'는 말은 모두 율곡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고, '구름이 젖어 있다'와 '풀이 향기롭다'는 귀절은 율곡의 끼친 업적이나 명성을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는 오죽헌에 있는 율곡이 어려서 쓰던 벼루의 글귀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율곡이 쓰던 벼루와 뒷면에 있는 정조의 글

그 벼루 바닥에는 율곡이 꿈에 얻은 시 귀절을 인용한 정조의 글이 새겨 있다.

> 무원*의 못에 적셔내어, 공자의 도를 본받아 널리 베풂이여!
> 용**은 동천으로 돌아갔건만
> 구름***은 먹에 뿌려 학문은 여기에 남았구나!
>
> 涵葵池 象孔石 普厥施/ 龍歸洞 雲潑墨 文在玆

---

* 주자를 뜻함.
** 율곡을 뜻함.
*** 명성 또는 영향을 뜻함.

총명하고 마음이 깊은 아이

율곡은 여섯 살 때까지 외가인 오죽헌에서 자랐다. 온화하고 인자한 외할머니는 유달리 율곡을 귀여워했는데, 그곳에서 율곡은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익히고 장난을 치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율곡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총명함으로 주위를 놀라게 했다.

율곡이 겨우 세 살밖에 안 되는 어렸을 때의 일이다. 외할머니가 석류 열매를 보이며 "이것이 무엇과 같이 보이느냐"고 물었다. 이에 율곡은 "은행은 껍질 속에 푸른 구슬을 머금었고, 석류는 껍질 안에 부서진 붉은 구슬을 싸고 있네銀杏殼含團碧玉 石榴皮裹碎紅珠"라고 답했는데, 이는 옛 시의 '石榴皮裹碎紅珠'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율곡은 세 살 때 말은 물론이요 글도 깨쳤던 것으로 추측된다.

율곡이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다. 율곡은 네 살 무렵 중국의 역사책 『사략史略』을 배울 때 일이다. 어느 날 스승이 "제위왕초불치제후개래벌齊威王初不治諸侯皆來伐"이란 문장을 풀이하면서 '제후' 아래에 구두점을 찍었다. 그렇게 되면 "제나라 위왕이 처음에 제후들을 잘 다스리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제후' 다음에 나오는 '개皆'의 주체가 불분명하여 문장의 뜻이 모호한 풀이였다.

율곡은 한동안 말없이 그 문장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골몰히 생각하다가 "개 자가 제후의 밑에 있으니 문세文勢로 보면 마땅히 '불치' 아래에 구두점을 두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율곡의 말대로 문장을 풀이하면 "제나라 위왕이 처음에 정치를 잘못하여 다른 제후들이 함께 와서 정벌했다"가 된다. 역사적 사실로 보나 문장의 의미로 보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스승은 무릎을 치면서 "옳거니, 네 말이 맞다. 이제 보니 내가 너의 스승이 아니라 네가 나의 스승이로구나"라고 했다.

율곡은 총명하기만 한 아이가 아니었다. 율곡이 다섯 살 되던 해 사임당이 갑자기 급한 병환이 나 온 집안 식구들이 어찌 할 줄을 모르며 걱정하며 지냈다. 이때 어린 율곡은 외할아버지의 사당祠堂에 들어가 어머니의 병환이 완쾌되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를 했다. 이처럼 율곡은 효심이 깊은 아이였다.

같은 해 큰비로 집 앞의 시냇물이 불었을 때의 일이다. 때마침 그곳을 건너던 사람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보는 사람은 손뼉을 치며 웃어댔지만 어린 율곡은 혼자 기둥을 붙잡고 마음을 죄다가 그 사람이 무사히 건너가고 난 후에야 안심했다고 한다. 이처럼 율곡은 어질고 착한 천성을 지닌 아이기도 했다.

쉼 없이 공부하는 천재 소년

율곡이 여섯 살 때 벼슬길에 들어선 아버지는 한양 수진방(지금의 수송동과 청진동 지역)에 집을 마련했다. 그래서 율곡은 나고 자란 정든 강릉의 외가를 떠나 부모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오게 되었다. 한양에 살게 되면서 율곡은 본격적으로 유교 경전을 공부했다. 어머니 사임당이 스승이었다. 사임당은 재주가 뛰어나고 행동이 의젓한 아들에게 정성을 쏟아 글을 가르치고 행실을 가다듬어 주었다.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율곡은 사임당의 돈독한 훈육으로 더욱 빠르게 학업을 성취해 나갔다.

이런 율곡이 『진복창전陳復昌傳』이라는 글을 지어 그의 사람됨을 평한 것은 일곱 살 때의 일이다. 진복창은 율곡의 이웃에 살던 사람으로, 율곡이 태어나기 일 년 전에 이미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그 무렵 한창 벼슬길을 달리고 있었다. 훗날 진복창은 윤원형을 도와 을사사화를 일으킨 인물로 사관들은 그를 독사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일곱 살의 소년 율곡은 평소에 자신이 본 진복창이란 인물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성숙한 군자는 마음속에 덕을 쌓는 까닭에 늘 태연하고, 성숙하지 못한 소인은 마음속에 욕심을 쌓는 까닭에 마음이 늘 불안하다. 내가 진복창의 사람됨을 보니 속으로는 불평불만을 품었

으되, 겉으로는 태연한 척한다. 이 사람이 벼슬자리를 얻게 된다면 나중에 닥칠 걱정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군자는 마음속에 덕을 쌓는 까닭에 늘 태연하고, 소인은 마음속에 욕심을 쌓는 까닭에 마음이 늘 불안하다"라는 귀절은 『논어』의 술이述而편에 나오는 공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율곡은 그 나이에 벌써 『논어』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율곡이 어린 나이에 유교 경전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한문 문장을 자유롭게 짓는 실력을 갖춘 것은 타고난 재능 때문만은 아니었다. 율곡은 서너 살 때 글을 읽기 시작한 이후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으며, 밤 새워 독서하는 일이 예사였다. 또한 평소 생활하면서 접하는 모든 사물과 사람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에 대해 골똘히 궁리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깊은 생각 끝에 어떤 마음과 뜻이 일어나면 붓을 들어 글을 짓고, 시를 써 기록했다.

율곡은 여덟 살 때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坡州 율곡리栗谷里*로 내려가 살게 되었다. 율곡리 마을 뒷산에는 할아버지가 새로 손보고 단장한 화석정花石亭**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율곡

* 이이의 호인 율곡은 이 마을 이름에서 따왔다. 율곡리에 얽힌 이야기는 229쪽에 자세히 실었다.
** 237쪽에 실려 있는 화석정에 얽힌 이야기 참조.

율곡이 여덟 살 때 지은 시의 편액이 있는 화석정

은 그곳에 오르기를 좋아했다. 화석정에 올라 보면, 눈 아래로는 임진강이 굽이굽이 흐르고, 맞은편에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으며, 뒤로는 별로 높지는 않으나 제법 산세를 갖추고 있는 산들이 자리하고 있다. 율곡은 화석정에서 눈앞에 펼쳐진 풍광에 젖어 시 한 편을 짓기도 했다.

숲 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으니
시인의 회포 다할 길이 없어라.
멀리 보이는 물은 하늘과 연하여 푸른데
서리 맞은 단풍은 햇볕에 붉구나.

산은 외로운 등근 달을 토해 내고
강은 만 리의 바람을 머금었구나.
하늘을 나는 저 기러기는 어디로 가는고
애잔한 울음소리 저녁 구름 속으로 끊기누나.

林亭秋已晩 騷客意無窮　　遠水連天碧 霜楓向日紅
山吐孤輪月 江含萬里風　　塞鴻何處去 聲斷暮雲中

율곡이 아홉 살 무렵 김안국이 지은 『이륜행실 二倫行實』에서 당나라의 장예공이라는 사람은 9대가 함께 살았다는 글을 보고, 여러 형제가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며 같이 사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이처럼 율곡이 곧잘 그림을 그린 것은 사임당의 영향이라고 하겠다. 후일 율곡의 누이 매창梅窓은 시화詩畵와 침선針線에 뛰어났고,

율곡의 누이 매창이 그린 매화 그림

율곡의 동생 이우가 그린 국화 그림

신사임당의 그림

동생인 옥산玉山(이름 瑀)은 서화에 능했음을 볼 때 형제들 모두 예술적 재능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렸을 때부터 경전에 통했고, 그림도 잘 짓고 글씨도 잘 썼다. 또한 바느질도 잘하고 수놓기까지 정교하지 않음이 없었다. ……평소에 묵화를 그리는 재주가 뛰어났는데 일곱 살 때 벌써 안견安堅의 그림을 모방하여 산수도를 그린 것이 아주 절묘하다"는 사임당으로부터 물려받은 천재성인 듯하다.

열 살 때 율곡은 가족과 함께 경포대에 들렀다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감상하면서 「경포대부鏡浦臺賦」를 지었다. '부'는 과거 시험에서 문학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삼을 정도로 웬만한 학문과 교양을 쌓지 않으면 써 내려갈 수 없는 문학 분야이다.

「경포대부」에 인용된 문장을 보면, 그 당시 율곡이 『논어』를 비롯한 유교의 기본 경전은 물론이고, 『좌전』·『사기』·『후한서』 등의 역사서, 『노자』와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략)

장주莊周는 내가 아니고 나비는 실물이 아니니, 생각하건대 꿈도 없고 진실도 없으며, 보통 사람이라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성인聖人이라 해서 있는 것도 아니거늘 마침내 누가 득得이고 누가 실失이겠는가?

그러므로 마음을 텅 비워 사물에 응하고 일에 부딪치는 대로 합당하게 하면, 정신이 이지러지지 않아 안이 지켜질 터인데, 뜻이 어찌 흔들려 밖으로 달리겠는가?

달達하여도 기뻐하지 않고, 궁窮하여도 슬퍼하지 않아야 출세와 은거의 도를 완전히 할 수 있으며, 위로도 부끄럽지 않고 아래로도 부끄럽지 않아야 하늘과 사람의 꾸지람을 면할 수 있다네.

또한 억제하기 어려운 것이 정情이고 넘치기 쉬운 것이 기氣이기에, 그 조양操養에서 기미機微를 잃어버린다면, 반드시 떠돌아다니거나 제멋대로 놀아나서 뜻을 잃기 마련일세.

명예를 구하거나 이익을 구하는 것은 정말 성정性情을 해치지만,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것은 나름대로 인지仁智를 대단히 사모한다오.

선비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자신을 사사로이 하지 않고, 혹시 풍운風雲의 기회를 만난다면 마땅히 사직社稷의 신하가 되어야 하리.

(후략)

불과 열 살의 소년이 썼다고 하기에는 문장에 담겨 있는 인생과 자연에 대한 사색의 정도, 선비로서의 자세, 정신세계 등이 너무나도 의미심장하다.

1548년(명종 3) 조정에서는 연이은 사화士禍로 위축된 문신의 사기를 고무하고 인재를 뽑기 위해 과거를 시행했는데, 열세 살의 율곡은 진사시進士試에 응하여 장원으로 합격했다. 진사시는, 합격하면 당시의 국립대학인 성균관에서 공부할 수 자격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낮은 직급의 관리로도 채용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다. 어린 나리에 진사시에 장원으로 합격한 이후 율곡의 문장은 일취월장日就月將하고 명성도 자자해졌으나, 그는 더욱 학문에 정진할 뿐이었다.

정신적인 시련

율곡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열여

섯 살 되던 해 여름, 율곡은 맏형 선璿과 함께 수운판관으로 조운漕運의 임무를 수행하는 아버지를 따라 관서 지방에 갔다. 사임당은 바로 그해 이사한 삼청동 집에 있었는데, 율곡 일행이 임무를 끝마치고 한양으로 돌아올 무렵 심상치 않은 병환이 생겨 매우 위중한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임당은 집에서 병구완을 하던 율곡의 둘째 형 번璠과 동생 우瑀를 불러 앉히고는 "아마도 내가 병을 떨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구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날 밤 약간의 차도가 있어 집안사람들이 적이 안심했으나, 17일 새벽에 홀연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때 율곡의 일행이 탄 배는 한강 하류의 서강(지금의 마포)에 와 닿았는데, 사임당이 하루만 더 살았어도 율곡은 임종 못한 한이나마 풀 수 있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깊었던 율곡이 가까이서 병구완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더구나 임종조차 지키지 못했으니 안타까움과 그리움에 뼈에 사무쳤다. 사임당의 죽음이 율곡에게 끼친 영향은 당대의 문장으로 떨치던 동년배 최립崔岦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상제의 몸으로 책을 쥐지도 못하고 다만 옛 사람들의 글로 해학에 가까운 것을 취해서 수시로 열람하며 시간을 보낼 뿐이었고, 그 문장에도 전연 접하지 않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분발해서 가슴속을 돌이켜 보니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파주에 있는 자운산에 어머니를 장사지내고 난 율곡은 무덤 옆에 여막을 짓고 가례家禮에 따라 정성을 다해 어머니의 영혼을 섬겼다. 음식 만드는 일, 그릇 씻는 일도 모두 직접 했다. 이듬해 여름 복服을 마쳤으나 어머니에 대한 슬픔이 가시지 않아 심상心喪*을 했다. 그러면서 틈이 있으면 책을 읽고 사색에 잠겼다. 율곡은 그 무렵 새삼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회의에 빠졌다. '사람은 왜 태어나며 왜 죽지 않으면 안 되는가?' 깊은 밤 적막한 산골에서 홀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해답을 구해 보았지만 도저히 풀 길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3년이 지나갔다.

열여덟 살이 되던 해 가을에 심제心制까지 마치고 관례를 행했다. 상투를 틀고 성인의 복색을 갖춘 후 아버지와 함께 사당에 올라 예를 올렸다. 이때 율곡은 숙헌叔獻이라는 자字**를 받았는데, '어진 젊은이'가 되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과 그에 따른 정신적 방황, 그리고 성인식……. 이로써 율곡은 소년에서 벗어나 청년으로 나아가는 길에 서게 되었다.

---

* 상복은 입지 않되 마음으로 슬퍼하는 일.
** 자와 호에 대해서는 241쪽 참조.

2. 청년기

인생에 대한 고민

열여덟 살이 되던 어느 날 울적한 심사도 풀 겸 뚝섬 강 건너 봉은사에 들렀다가 우연히 불교 서적을 보게 되었다. 송시열宋時烈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율곡은 어린 시절에 불교와 노장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중에서도 『능엄경楞嚴經』을 가장 좋아했다고 한다. 능엄경은 불교의 기본 경전 중 하나로 '깨달음의 본성이 무엇인가 밝히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밝힌 소화엄경小華嚴經'이라고 불리면서 널리 독송되던 경전이었다. 송시열은 다음과 같이 율곡의 행적을 전하고 있다.

……가만히 생각하건대 문성공 이이는 타고난 재질이 매우

> 높아 대여섯 살 때 이미 학문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또한 열 살에 못 미쳐서 각종 유교 경전을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도가 다만 이것뿐인가"라고 한탄하면서 불교와 도교 서적도 널리 읽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것은 '능엄경'이었습니다. 대개 그 내용은 안으로 마음과 본성을 말한 것이 매우 정미精微하고 밖으로는 하늘과 땅의 치수가 광활한 것을 말한 내용인데, 문성공의 타고난 자질이 아니라면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내용을 능히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어떻게 능히 그 맛을 알았겠습니까?

율곡은 마치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 같은 불교의 사생관死生觀에 이끌렸다. 또한 불교의 선禪에는 책이나 읽고 따지는 것과는 달리 대번에 진리를 깨치는 돈오頓悟의 방법이 있었다. 율곡은 이것을 독서와 사색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빠르고 궁극적인 방법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열아홉 살 되는 해 봄, 율곡은 금강산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유가儒家에서는 불교를 삼강오륜의 인륜에 벗어난 그릇된 도道라고 하여 그에 물드는 것을 꺼려해 불교와 관련된 서적을 읽는 것조차 금하고 있었다. 그러나 율곡은 책을 읽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불교를 연구하기 위해 금강산으로 들어가려고까지 한 것이다. 불교에 귀의하면 선비로서 과거도 벼슬도 길이 막히고 따라서 세속적인 출세는 영영 단념해야 되는 것이니 어지간한 용단

이 아니고서는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

그러나 율곡에게 그러한 이해타산은 이미 안중에도 없었던 듯하다. 그 당시 율곡의 번민과 고뇌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되는 대목이기도 한다. 율곡은 여전히 참된 진리를 깨쳐 성현이 되는 염원을 품고 있었다. 율곡은 이러한 생각을 친구에게 글로 써 보내기도 했다.

>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기氣라는 것을 타고나는 것인데 이 기를 잘 기르면 마음이 주재하는 대로 기가 복종하여 성현이 될 수 있으나, 만일 기를 기르지 못하여 그와 반대로 마음이 기에 복종하게 되면 모든 정욕이 문란하게 날뛰어 어리석은 미치광이를 면하기 힘들 것이다. 맹자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기를 잘 기른 예라 하겠다. 도리를 깨치고 본연의 천성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기를 기르는 수밖에 없다. 공자가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고 했거니와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의 기를 기르는 방법은 산과 물을 버리고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심정으로 율곡은 금강산 마하연으로 들어가 의암이라는 법명으로 불교 수행을 시작했다. 머리를 깎고 완전히 스님이 되어 불법을 연구했는지 아니면 선비의 행색인 채로 불교 교리만 공부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여튼 율곡이 인생의 삶과 죽음에

관해 번민한 나머지 금강산 절로 들어갔으되 친구들에게 기를 길러 성현이 되기를 기약한다는 글을 남긴 점으로 보아 유학자로서의 뜻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닌 것 같다.

율곡은 약 일 년 동안 금강산에 머물면서 여러 곳의 선방禪房과 이름 높은 스님을 찾아다니며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다가 "내 가슴속에 산과 물이 있으니 이곳 금강산에 더 머물 필요가 없네胸中有山水, 不必於此留"라는 말을 남기고, 마침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라는 유교의 교리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율곡이 과연 금강산에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는가 하는 점에 많은 의문을 갖곤 했다. 훗날 제자 김장생金長生이 율곡에게 "지난날 금강산에 들어갔을 때 머리를 깎았느냐"고 묻자 율곡은 웃으며 "이미 산에 들어가서 외양은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이 이미 불교에 빠졌다면 외양을 따져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대답했다.

장래가 촉망되는 유학자가 불교에 입문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는 행위나 다름없었으며, 실제로 이 일은 나중에 두고두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공격의 빌미를 제공했다. 하지만 율곡의 입산수도는 그의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라는 의미인 동시에 성리학을 대성하는 밑거름이 되어 그의 철학에 독창성과 통합성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출발

금강산에서 나온 스무 살의 율곡은 외할머니가 있는 오죽헌의 외가로 갔다. 사랑하는 딸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뜨고 율곡마저 방황하는 듯한 모습으로 금강산으로 들어가 버려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지내던 외할머니는 율곡을 반갑게 맞이했다. 오죽헌에서 외할머니의 자애로운 보살핌을 받으며 율곡은 슬픔과 고민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을 준비하고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점차로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던 율곡은 장차 걸어 갈 목표를 뚜렷이 정하고 그것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율곡은 한결같이 힘써 나아갈 구체적인 방법까지 세밀하게 계획하며 스스로 경계하는 글을 써 이를 좌우명座右銘으로 삼았다. 이때 쓴 글이 바로 「자경문自警文」이다.

- 가장 먼저 큰 뜻을 품어야 한다. 성인聖人을 거울삼아 조금이라도 그에 미치지 못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끝났다고 할 수 없다.
-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말을 적게 하며, 마음의 안정은 말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제때에 말을 한다면 간략하게 할 수 있다.
- 항상 마음이 안정(고요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음이 어수선하고 떠들썩할 때에는 정신을 모아서, 경솔하게 어지러움

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노력한다면 반드시 마음의 안정을 이룰 수 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이다.

- 항상 몸가짐을 조심하고 홀로 있을 때를 삼가라. 홀로 있음으로 나쁜 생각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 글을 읽는 까닭은 옳고 그름을 알아 일을 할 때 적용하기 위함이다. 즉, 만물의 이치를 구하기 위해 글을 읽는 것이다. 만약 오롯이 앉아 글만 읽는다면, 그것은 쓸모없는 학문을 하는 것이다.
-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조금이라도 편리하게만 일하려는 마음도 이로움을 탐하는 마음이다. 더욱 조심하여 버릴 일이다.
- 꼭 해야 할 일이라면 피하거나 게으름피지 않고 정성을 다해야 한다. 만약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면 완전히 끊어 버려서 옳으니 그르니 하는 마음이 다투게 해서는 안 된다.
- '단 한 가지의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행하고 무고한 단 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여 천하를 얻을 수 있더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
-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치에 맞지 않는 악행을 가해오면, 나는 스스로를 돌이켜 깊이 반성하고 그를 감화시켜 그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한 집안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나의 성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 밤에 잠을 자거나 몸이 아프지 않으면 아무 때나 눕지 않도록

하며 비스듬히 기대어 앉지도 않는다. 항상 마음을 깨어 있게 해야 한다.

- 공부는 늦추어서도 급하게 해서도 안 된다. 공부는 평생 동안 정진할 일이다.

이처럼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로 자신을 다지며 율곡은 그 해 겨울 동안 강릉에서 학업에 정진했다. 이듬해(1556년) 봄 율곡은 한성부에서 주관하는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뽑히면서 다시 자신의 인생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갔다.

퇴계와의 만남

스물두 살이 되던 해 9월 율곡은 성주 목사 노경린盧慶麟의 딸과 혼인의 예를 올렸다. 부인 노씨는 율곡보다 여섯 살 어린 열여섯 살의 신부였다. 혼인 후 율곡은 어릴 때부터 폐질을 앓아 병약한 부인과 함께 성주에 있는 처가에서 그해 겨울을 보냈다.

이듬해 봄 성주의 처가에서 강릉으로 가는 도중 율곡은 예안에 있는 퇴계退溪를 방문했다. 그때 퇴계는 쉰여덟 나이의 원숙한 대학자였고 율곡은 스물세 살의 재기발랄한 청년이었다. 더욱이 율곡은 아직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미미한 존재였고, 불교에 입문했

던 사실로 인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다.

율곡은 먼저 대스승인 퇴계에게 인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시 한 수를 지어 바쳤다.

시냇물은 수사洙泗*에서 갈라져서 흐르고
봉우리는 무이산**처럼 드높습니다.
살림이라곤 경서가 천 권이고
몸 둘 집은 몇 칸뿐이지만
가슴에 품으신 뜻은 환히 갠 하늘의 달과 같고
웃으며 하시는 이야기는 미친 물결조차 잠들게 하십니다.
제가 찾아온 것은 도를 듣고자 함이니
반나절을 헛되이 보낸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峰秀武夷山 活計經千卷 行裝屋數間 襟懷開霽月
談笑止狂瀾 小臣求聞道 非偸半日閑 溪分洙泗派

이에 퇴계도 화답하며 시 한 수를 지었다.

병든 나는 문을 닫고 있어 봄이 온 줄을 몰랐는데
그대가 찾아와 마음을 상쾌하게 열어 주네.
선비의 높은 명성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으니

* 수수洙水와 사수泗水. 노나라에 있는 강 이름. 공자가 이 근처에서 제자를 가르쳤으므로 공자의 학문을 일컫는다.
** 주자가 학문을 완성한 문공서원文公書院이 있는 곳, 곧 주자의 학문을 일컫는다.

몸가짐도 변변히 못해 온 내가 부끄럽구려.
좋은 곡식에 쭉정이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새로 닦은 거울에 티끌도 묻지 않게 하오.
정에 겨워 과분하게 표현한 시어는 깎아 버리고
힘써 공부하여 날로 더욱 친해 보세.

病我牢關不見春　公來披豁醒心神　己知名下無虛士　堪愧年前闕敬身
嘉穀莫容稊熟美　遊塵不許鏡磨新　過情詩語須刪去　努力功夫各自親

퇴계가 율곡에게 회답한 시에 나타난 것처럼, 퇴계는 율곡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율곡의 언행이나 몸가짐에 좋은 인상을 받은 것 같다. 율곡은 퇴계의 집에 사흘간 머물면서 학문과 인생의 나아갈 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퇴계는 율곡이 한때 불교에 심취했던 것을 숨기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큰 지혜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며, 송나라의 정자와 주자 같은 훌륭한 학자도 한때 불교를 좋아한 일이 있다고 말해 주었다. 이는 바른 길로 힘써 나아가면 장래에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위로하며 분발할 것을 권장하는 퇴계의 마음이었을 것이다.

율곡이 찾아와 학문을 논하고 간 다음 퇴계는 제자인 조목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를 이렇게 평하고 있다.

일전에 서울에 사는 선비 이이가 성산으로부터 나를 찾아왔었네. 비 때문에 사흘을 머물고 떠났는데, 사람이 밝고 쾌활하며

지식과 견문도 많고 학문에 뜻이 있으니, "후생이 가히 두렵다"
는 옛 성인의 말씀이 참으로 나를 속이지 않았네.……

율곡이 강릉으로 간 뒤 퇴계는 그의 앞길을 격려하며 분발할 것을 당부하는 편지와 시를 보냈다.

예부터 학문은 세상을 경이롭게 보고 의문을 품는 것
이익을 위해 경서 읽는다면 도에서 더욱 멀어지리.
고마워라! 그대만이 홀로 깊이 뜻 이룰 수 있어
사람들 그대 말 듣고 새로운 앎 얻으리.
從來此學世驚疑 射利窮經道益離 感子獨能尋墜緖 令人聞語發新知

이처럼 짧은 만남이었지만 퇴계는 율곡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율곡이 당시 사림의 가장 영향력 있던 퇴계를 찾아가 도를 묻고 서로 문답을 주고받은 후 퇴계가 율곡을 동학同學으로 인정하자 사림에서는 율곡에 대한 이단 시비가 많이 수그러지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율곡은 퇴계와의 만남을 "내가 학문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사나운 말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여 가시밭길의 거친 들에 있다가 방향을 고쳐서 옛길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는 실로 퇴계 선생의 격려에 힘입은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그리고 첫 만남이 있은 지 12년 후 퇴계가 세상을 떠나자 율곡은 그를

위해 만사輓詞를 지었으며, 스승에 대한 예로 흰 띠를 두르고 심상心喪을 했다.

출사의 길

강릉 외가를 거쳐 한양으로 올라온 율곡은 그해 겨울에 실시한 별시에서 장원으로 뽑혔다. 그런데 천재인 율곡이라고 해서 시험에서 실패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558년 퇴계가 율곡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옛 사람이 이르기를 '젊은 나이에 과거에 오르는 것은 하나의 불행이다'라고 했으니, 자네가 이번 과거에 실패한 것은 아마도 하늘이 자네를 크게 성취시키려는 까닭인 것 같으니, 자네는 아무쪼록 힘을 쓰게나"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율곡이 과거에 낙방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율곡은 퇴계에게 편지를 받은 그해 겨울 별시에서 「천도책天道 策」으로 장원 급제를 했다. '천도책'이란 천문, 기상의 순행과 이변 등에 대한 책론*으로, 그 당시 시험관들은 율곡의 「천도책」을 보고 "이 시험 문제를 만들기 위해 여러 날 힘들었는데, 이이는

* 책策이란 과거 시험 문제의 한 종류로, 사안을 질문하고 이에 대책을 서술하는 형식을 말한다. 과거 시험은 문학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는 '부', 임금에게 자기 생각을 건의하는 '표', 임금이 출제한 정치·사회적 현안의 대책을 논술하는 '책문'이 있었다. 특히 책문은 수험자의 개성과 경륜, 정치적 포부를 담아 글이다. 율곡 이이가 쓴 「천도책」은 조선조 책문의 백미로 꼽힌다.

짧은 시간에 이처럼 놀라운 내용의 글로 답안을 지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천재다"라고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또한 이 「천도책」은 중국에까지 널리 알려졌는데, 훨씬 후 율곡이 명나라 사신을 접대할 때 그들은 율곡이 바로 「천도책」을 지은 인물임을 알고 극진하게 대우했다고 한다. 스물세 살 때 지은 글로 외국 사신의 존경을 받으며 국가 간의 친선을 도모하는 데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천도책」의 의의가 높이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느덧 율곡은 스물다섯 살이 되었다. 「천도책」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아직까지 대과에 합격한 것은 아니었다.* 집안 형편으로 보아 하루 빨리 대과에 합격해 식솔을 돌봐야 하는 처지였다. 손위의 두 형은 뚜렷하게 벼슬길로 나아간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 또한 관직에서 물러난 후 별달리 하는 일 없이 독서 등으로 소일하는 형편이었으니, 가계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데 율곡의 도의지우道義之友였던 우계牛溪 성혼成渾은 율곡이 과거를 보아 입신출세하는 것을 만류했다. 율곡의 생애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벗 우계, 우계가 없었더라면 천재 율곡은 대정치가로만 성장했을 뿐 공맹의 바른 맥을 잇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우계는 평생 동안 율곡으로 하여금 정치와 학문을 병행하도록 채찍질했던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퇴계가 율곡의 정신적 스승이었다면

* 조선의 과거 제도에 대해서는 249쪽 참조.

우계는 율곡의 정신적 도반道伴이었다.

그런데 우계는 어째서 율곡이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반대했던 것일까? 그것은 당시의 시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조광조趙光祖를 중심으로 하는 신진 사림파가 정치 개혁을 부르짖다 숙청당한 비극적인 기묘사화는 1519년, 율곡이 태어나기 17년 전에 일어났던 일로 율곡의 청년기에도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또한 우계는 기묘사화의 직접적인 피해자였다. 그의 아버지 성수침成守琛이 조광조의 직계 제자였던 것이다.

율곡은 평소에 성수침을 마음깊이 존경하고 있었다. 성수침이 죽었을 때 퇴계는 묘갈명을 쓰고 기대승은 묘지명墓誌銘을 짓고 율곡이 행장기를 지어 바쳤는데, 특히 절친한 친구였던 우계의 아버지가 별세하자 "이런 분을 위해 통곡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통곡할 것인가"라고 절규했던 율곡이었다.

애당초 율곡은 과거를 통해 이름을 드높일 꿈은 없었다. 율곡의 이러한 심정은 우계에게 보낸 편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 ……우리 집안은 대대로 생업이 없으므로 궁하여 가계를 지탱하지 못해 노친께서 집에 계셔도 능히 맛있는 음식을 드리지 못하니 사람의 자식이 되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품팔이나 장사라도 할 수 있다면 이를 부끄러워하거나 천히 여기지 않겠는데, 단지 나라의 정해진 습속에는 선비와 서민의

생업이 다르니 진실로 이러한 생각을 억제할 뿐 행할 수는 없네.……과거를 보는 한 가지 길로 노친을 봉양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뜻을 굽힌 것이지 감히 가난으로 인해 녹봉을 구하는 것을 공맹의 바른 맥으로 삼은 것은 아니라네.

편지를 보면, 우계가 율곡이 과거를 보아 급제하여 '녹봉을 구하는 짓'에 전념한다고 비판하자 자신의 입장을 변명했던 것 같다. 율곡은 우계에게 자신이 과거를 보는 것은 노친, 즉 늙은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한 방편일 뿐 '공맹을 도를 버리고 녹봉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율곡의 이러한 변명은 정신적 스승이었던 퇴계의 처신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퇴계 역시 자신의 평생 과업이 벼슬의 길이 아니라 학문의 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다만 늙은 어머니가 가난으로 고생하고 가세가 궁핍하자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보아 벼슬길에 나섰던 것이다. 이러한 퇴계의 심정은 조식曺植에게 보낸 편지에 절실하게 나타나 있다.

……나는 집이 가난하고 모친이 늙으셔서 억지로 과거를 보아 녹봉을 받게 되었습니다.……그 뒤 병은 더욱 깊어 가고 또 세상에 나가 일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안 뒤에야 비로소 뉘우치고 물러나 옛 성현의 글을 더욱더 힘써 읽어 보니 이전의 학문 방향과 처신이 모두 옛날 사람에 비해 크게 어긋났

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두려운 마음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그들을 따르고자 길을 바꾸어 노년기의 삶을 수습코자 하였습니다.……

퇴계가 집이 가난하고 모친이 늙어서 억지로 녹봉을 마련하기 위해 벼슬길에 올랐다면 율곡 역시 집이 가난하고 노친을 봉양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과거를 보아 벼슬길로 나가려 했던 것이다.

그해 동짓날 한밤중 율곡은 시 한 수를 읊으며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의지를 다졌다.

……
외모가 정숙하지 않으면
태만한 버릇이 여기에 모여들고
산만한 앉음과 쓸데없는 말은
필경 좋은 가짐이 아니니
의관을 반드시 단정히 하고
언어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네.
중심이 한결같지 않으면
사특한 생각이 기회를 엿보아
어지럽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사이에
불꽃처럼 사납고 말처럼 신속하므로
앞뒤 즈음을 딱 잘라 버리고

우뚝 서서 의심치 않아야 하네.
홀로를 삼가고 쉬지 않고 노력함이
바로 성인의 지극한 말씀이니
서면 눈앞에, 수레에 오르면 멍에에 보이는 듯
어디서나 잠시도 떠나지 않아야 하네.
마음가짐이 하늘처럼 넓으면
누추한 집에 산다 해도 부끄러움 없으리.
짐은 무겁고 길 또한 멀므로
요컨대 뜻을 장수로 삼아야 하며
높은 산도 곧 지금부터 시작되니
한 삼태기 흙도 모자라지 않게 해야 하리.
고요히 천지의 화육 관찰하건대
지극히 건전하기에 공효에 베풀어지네.
사람이 이를 본받지 않는다면
제 몸을 스스로 포기함이니
다만 먼지만 씻어 없애면 그만
거울은 원래 더러움이 없다네.

外貌不莊肅　怠慢於斯萃　散坐與空談　畢竟非善戲
衣冠必整飭　言語愼勿費　中心不專一　邪思所窺
擾擾起復滅　火炎兼馬　載斷前後際　卓立恒勿貳
愼獨與不息　聖謨斯爲至　參前復倚衡　不可須臾離
處心廓如天　屋漏可無愧　任重且道遠　要以志爲帥
九今正始　莫使虧一　冥觀天地化　至健功乃始
爲人不法此　有身乃自棄　但使泥塵盡　水鏡元無累

율곡이 스물여섯 살이 되던 해 5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율곡은 어머니 사임당을 모신 선영인 자운산에 아버지를 장사지내고 어머니 때와 마찬가지로 3년간 시묘살이를 했다.

아버지의 삼년상을 마친 후 율곡은 드디어 대과에 장원으로 합격했다. 율곡은 스물아홉 살 되던 해 문과의 초시·복시·전시에 모두 장원으로 합격하여 '삼장三場 장원'으로 불렸으며, 또 그해 생원시에 장원하고 이어 진사시에 합격했으며 문과에서도 모두 장원을 하니, 장원을 차지한 것이 모두 아홉 번이었으므로 율곡을 '구장九場 장원', '구도九度 장원'이라 일컬었다.

대과 급제를 계기로 드디어 율곡은 학문의 세계에서 현실의 정치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가슴에 간직하고 있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웅대한 포부와 함께.

3. 장년기

과감한 젊은 관료

1564년(명종 19) 8월 율곡은 첫 벼슬로 호조 좌랑佐郞에 임명되었다. 호조는 국가의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었다. 그러나 율곡은 처음 직책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이듬해 봄 예조 좌랑佐郞으로 자리를 옮긴 율곡은 과거에 급제한 지 약 1년 만에 보우와 외척 윤원형의 잘못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율곡은 이 상소문에서 윤형원과 보우의 처벌은 백성의 공론이므로 이를 따를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그 문장이나 주장하는 방식이 상당히 과감했다. 그러다 11월에 사간원 정언正言에 제수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양했지만, 이듬해에 다시 사간원 정언에 제수되었다. 정언은 왕명이나 조칙이 합당하지 않은 것을 봉함하여 되돌려 보내면서 반박의 의견

을 전달하는 봉박封駁과 왕에게 간하여 잘못을 시정하는 간쟁諫諍을 맡아 보는 관리로, 무척 중요한 직책이었다.

정언에 임명된 후 율곡은 동료들과 함께 소를 올려 그 당시의 상황에서 화급하고 중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 세 가지를 지적했다. 율곡 등이 꼽은 '시국의 급선무 세 가지'는 첫째 마음을 바로 하여 정치의 근본을 세울 것, 둘째 어진 이를 등용하여 조정을 맑게 할 것, 셋째 백성을 편안케 하여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할 것이었다.

그해 겨울 다시 자리를 옮겨 율곡은 이조 좌랑에 임명되었다. 이조 좌랑은 인재를 선발하는 자리였는데, 벼슬길이 대단히 흐려져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율곡은 사사로운 정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정신으로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고 맑고 공평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데 힘을 쏟았다.

1567년 6월 명종이 세상을 뜨고 열여섯 살의 어린 임금 선조가 즉위했다. 율곡은 서른세 살이 되는 선조 원년(1568) 2월 사헌부 지평持平으로 승진했고 성균관 직강*이 되었다. 그해 5월에는 명의 황태자 생일에 정기적으로 파견되는 사신인 천추사千秋使를 수행하는 기록관인 서장관書狀官으로 명을 다녀오는 기회를 가졌다. 율곡이 그 당시 사신으로 지난 길을 따로 기록하여 전하는 글은 없지만,

* 성균관에는 최고의 책임자로 정3품인 대사성大司成을 두었으며, 그 아래에 좨주祭酒, 악정樂正, 직강直講, 박사博士, 학정學正, 학록學錄, 학유學諭 등의 관직을 두었다.

몇 편의 시를 통해 율곡이 평양을 거쳐 의주를 지나 배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 국경을 넘었음을 알 수 있다. 율곡을 포함한 사신 일행은 산해관 부근에서 만리장성을 보고 7월경 북대하 부근에 도달했으며, 8월 초순에 명의 수도(현재의 베이징)에 들어섰다. 천추사인 목첨과 함께 율곡은 8월 8일 중국 황제를 배알했는데, 조선의 사신이 수도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40일로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줄잡아 9월까지 그곳에 있었을 것이다. 이때 조선의 사신 일행은 왕복 6,800여 리의 길을 여행했으며 기간도 6개월 남짓 걸렸다. 율곡은 동생에게 보내는 시에서 사신 일행의 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갔던 길이 삼천 사백 리
돌아오는 길도 삼천 사백 리
걷고 또 걸어 육천 팔백 리
한 달 한 달 여섯 달을 지냈다네.

율곡은 명의 수도까지 멀고 힘든 길을 다녀오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을 것이며, 이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율곡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다만 기록으로 전하지 않음이 안타까운 일이다.

6개월여 만에 한양으로 돌아온 율곡은 다시 호조 좌랑에 임명되었으나, 외할머니의 병환 소식을 듣고 부임하지 않고 바로 강릉으

로 갔다. 당시 조정에서는 직무 유기를 이유로 율곡을 파면시키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선조는 그의 효행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았다.

굳은 개혁 의지를 가진 관리

1569년(선조 2) 율곡은 홍문관 부교리副敎理에 임명되어 한양으로 올라왔다. 흔히 '옥당玉堂'이라고 부르는 홍문관은 궁중의 경서와 사적史籍을 관리하며 임금의 자문에 응하는 기관으로 경연經筵의 관직을 겸했다. 율곡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군주에게 유교 경전을 가르치면서 훌륭한 왕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학聖學을 강조했다. 몇 달 후 율곡은 사가독서賜暇讀書*의 명을 받고 『동호문답東湖問答』을 지었는데, 이를 통해 율곡은 왕도 정치를 회복할 수 있는 방책과 포부를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다. 『동호문답』은 주인과 손님이 서로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홍문관의 유능한 젊은 문신을 선발하여 휴가를 주어 잠시 동안 정무를 떠나 지금의 성동구 금호동(東湖)에 있는 독서당에서 글을 읽고 연구하여 학문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 사가독서에 선발되는 사람은 유능하고 학문의 가능성이 있은 젊은 문신이므로 여기에 선발된다는 것은 영광이자 출세의 길도 약속되는 것이었다. 사가독서하는 사람은 월과月課(다달이 제출하는 과제)로 글을 짓게 하였는데 『동호문답』은 율곡의 월과로 자신의 정치관을 문답식으로 서술하여 선조에게 올린 글이다.

- 임금의 정치하는 도리를 논함(君道) :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천리天理의 바른 것을 행한 왕도王道이며, 삼황오제가 그 모범이다.
- 신하로서 해야 할 도리를 논함(臣道) : 신하는 왕과 백성을 위해 몸가짐을 정도正道로써 하는 대신大臣, 자신을 돌보지 않고 왕을 섬기며 사직을 보호하는 충신, 항상 직분을 지키며 그 재능이 한 자리만 감당할 만한 간신幹臣으로 구분된다. 또한 재야의 학자는 천하를 구제할 능력을 갖추었으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천민天民, 학문이 부족함을 헤아려 항상 정진하며 때를 기다리되 경솔하게 나아가지 않는 학자學者, 고결한 인격을 갖추고 숨어 사는 은자隱者로 구분할 수 있다.
- 왕과 신하가 서로 잘 만나기가 어려움을 논함(君臣相得之難) : 도학은 성의와 정심으로 수기修己하여 몸에 쌓이면 천덕天德이 되고 정치에 베풀면 왕도가 된다. 독서란 실천이 중요하니 독서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앵무새와 무엇이 다른가? 왕과 신하는 서로 신뢰해야 함이 마땅하나, 여기에 부합되는 경우는 촉한의 유비와 제갈량 정도이다.
- 우리나라에 도학이 행해지지 못함을 논함(東方道學不行) : 우리나라에는 수천 년 동안 도학을 제대로 성취한 진유眞儒가 한 사람도 없었다. 진유란 관직에 나아가면 도를 이루어 안민을 하는 사람이요, 은퇴하면 세상에 교화를 베풀어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사람이다.
- 우리나라에 옛 도古道가 회복되지 못했음을 논함(我朝古道不復) :

우리나라의 정치는 세종 대에서만 볼 만했다. 지금은 왕이 새로 즉위하여 일을 해 볼 만한 때이니, 안일을 버리고 백성을 구제할 계책을 강구해야 한다.

- 오늘날의 시대적 상황을 논함(當今之時勢) : 정치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사람에 달린 것일 뿐 때와는 관계가 없으니, 지도자가 분연히 일어나 옛날의 훌륭한 정치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도 치도의 진흥을 이룰 수 있다.
- 무실이 자기 수양의 요체가 됨을 논함(務實爲修己之要) : 지도자인 왕이 좋은 정치를 이루고자 한다면, 뜻을 세우되 실효가 있도록 해야 한다. 자기 수양을 하면서 모든 일을 합리의 여부로 보아야 하며 실용에 힘쓰며 백성의 고통을 제거해야 한다.
- 간신의 분별이 어진 이를 등용하는 요체임을 논함(辨奸爲用賢之要)
-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논함(安民之術)
- 백성을 교화하는 방법을 논함(敎人之術)
- 명분을 바르게 함이 정치의 근본임을 논함(正名爲治道之本)

또한 율곡은 「옥당에서 시대의 폐단을 논함」이라는 상소를 동료와 함께 올리며 고쳐야 할 아홉 가지의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 성상의 뜻을 안정시켜 실질적인 효과를 추구할 것
- 도학을 숭상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바로잡을 것
- 기미機微를 잘 살펴서 사림을 보호할 것

- 대례大禮를 신중히 하여 배필을 소중히 할 것
- 기강을 바로 세워 조정을 정숙整肅하게 할 것
- 절검節儉을 숭상하여 나라의 경제를 여유 있게 할 것
- 언로言路를 넓혀 여러 계책을 모을 것
- 현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모아 하늘의 직책을 함께 수행할 것
- 폐단이 있는 법을 개혁하여 민생을 구제할 것

이와 같이 율곡은 적극적으로 개혁을 실천하고자 노력했으나, 선조의 우유부단한 태도로 실천에 옮겨진 것은 거의 없었다. 율곡은 점차로 관리로서의 삶에 대해 회의적이 되었고 자신의 진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관직에 계속 머물 것인가, 아니면 퇴계처럼 낙향을 할 것인가. 그러나 희망을 완전히 버리기에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희망이 없는 정치 상황

외할머니의 상을 치르고 강릉에 있던 율곡은 1570년(선조 3) 4월 다시 교리에 임명되어 혹시나 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조정에 복귀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암울했다. 왕이나 조정 대신 모두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 조정에서는 민폐를 개

선하고자 3정승을 주축으로 정공도감을 설치하여 각 군에서 바치는 공물을 부담 능력에 따라 차등을 두어 균형을 잡으려 하는 듯했으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철저하게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없었다. 진퇴를 고민하던 끝에 다시 관직에 복귀했으나, 율곡은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 당시의 심정을 평소 알고 지내던 최운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조정에 일이 있어 사양하지 못한 채 억지로 일을 하게 되었다.……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다.

더구나 8월에 맏형의 상을 당하여 그 식솔을 건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고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은 편이어서, 율곡은 10월에 사퇴하고 해주 들마을(야두촌)의 처가로 갔다. 해주에서 생활할 즈음 율곡에게 학문을 배우고자 전국에서 많은 선비들이 찾아왔다. 이렇게 하여 율곡은 공식적으로 서원을 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실제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해 12월, 퇴계의 부음을 들은 율곡은 위폐를 만들어 놓고 곡을 했으며, 흰 띠를 차고 외실에 거처하면서 동생 우를 시켜 제문을 바치도록 했다. 율곡은 퇴계를 떠나보낸 심정을 다음과 같이 시로 담아내기도 했다.

아름다운 옥 정금같이 타고난 정기 순수한데
참된 근원은 관민에서 갈려나왔다.
백성은 위아래에 혜택 입기를 바랐건만
자신은 산림에서 홀로 몸을 닦으셨네.
호랑이 떠나고 용도 사라져 사람의 일은 변했건만
물결 돌리고 길 여신 저서가 새롭구나.
남쪽 하늘 아득히 저승과 이승이 갈리고 마니
서해 물가에서 눈물 마르고 창자 끊어집니다.

良玉精金氣純 眞源分派自關 民希上下同流澤 迹作山林獨善身
虎逝龍亡人事變 瀾回路闢簡編新 南天渺渺幽明隔 淚盡腸催西海濱

율곡은 이듬해 정월 해주에서 파주 율곡리로 돌아왔다. 이때 율곡은 이조 정랑에 임명되었으나 출사하지 않았다. 곧 다시 교리에 임명되었고 홍문관 부응교副應敎 지제교知製敎 겸 경연시독관 춘추관 편수관編修官을 제수 받았으나 모두 사퇴하고 해주로 돌아갔다. 해주에서 지내던 어느 날 율곡은 해주 고산高山에 있는 석담구곡石潭九曲을 구경한 후 그곳에 은거할 계획을 세웠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율곡은 청주 목사牧使에 임명되었다. 율곡은 이미 정치에 대한 열의를 거의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백성과 직접 만나면서 교화를 펼 수 있다는 생각에 취임했다. 청주 목사가 된 율곡은 「여씨향약呂氏鄕約」을 토대로 손수 「서원향약西原鄕約」*을 만

* 서원은 청주의 옛 이름. 율곡은 이 고을 군수로 있던 이증영·이인 등이 만든 기존의

들어 고을의 자치 능력을 길러 주고자 힘썼다. 그러나 서른일곱 살이 되는 1572년 3월, 병으로 청주 목사를 그만두게 되어 더 이상 향약의 실시를 감독하고 독려할 수 없었다.

한양으로 올라와 요양하고 있던 율곡은 여름에 부응교에 임명되었으나 다시 병으로 물러나 율곡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8월에 원접사遠接使 종사관從事官, 9월에 사간원 사간司諫, 12월에 홍문관 응교應敎, 홍문관 전한典翰에 각각 임명되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573년(선조 6) 율곡은 다시 홍문관 직제학에 임명되었는데, 병으로 사퇴코자 했으나 허락 받지 못하여 부득이 올라와 세 번 상소하여 허락을 받아 율곡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해 9월 율곡은 다시 조정에 복귀했다. 다시 직제학을 제수 받고 세 차례나 사양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나오게 된 것이다. 율곡은 직제학에 임명된 겨울에 동료들과 「옥당 진계차陳戒箚」*를 올려 여전히 올바른 정치를 펴고자 노력했다. 그 뒤 율곡은 통정대부通政大夫 승정원承政院 동부승지同副承旨 지제교 겸 경연 참찬관參贊官 춘추관 수찬

향약을 토대로 송나라 여씨 형제의 「여씨향약呂氏鄕約」을 참고·절충하여 만들었다. 이것은 「여씨향 약」이나 「주자증손여씨향약」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향촌 실정에 맞는 향약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시행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 상소疏箚는 조선 시대 정치 문화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왕명이나 국가 정책의 비리나 부당성을 관료나 지성인이 백성을 위해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 피력한 것. 내용과 형식에 따라 소疏·차箚·계啓·의議 등으로 구별된다. '상소'는 글로 진술하여 간諫하는 것으로 보통의 상소문·봉사封事라고도 하며, '차자'는 상소보다 간단한 형식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올리는 글로 주차奏箚·차문箚文·차箚라고도 한다. '계'는 지방 장관이나 관원이 임금이나 중앙 관청에 올리는 공식적이고 사무적인 성격의 글이며, '의'는 정책에 대한 입안을 돕기 위해 올리는 건의에 가까운 형식의 글이다.

관修撰官에 임명되었다. 승지는 왕의 비서에 해당하는 직책으로 왕을 더욱 가까이에서 보필할 수 있는 자리였다.

율곡은 서른아홉 살이 되는 1574년 정월에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승진했다. 이때 율곡은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지어 올렸다. 율곡의 「만언봉사」는 제도 개혁을 이루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법을 고치고, 일곱 가지 무실無實을 없애면서 실사實事에 힘쓰고,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방책을 논하고 있다. 율곡의 상소에 대한 왕과 조정의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율곡이 상소를 올린 이후 어떠한 구체적인 개혁 조치도 내려지지 않았다. 그 후 3월에 병조 참지參知, 사간원 대사간大司諫에 임명되었으나 율곡은 병으로 사퇴하고 율곡리로 돌아갔다.

파주로 돌아온 이후로도 율곡은 다시 승지와 대사간을 제수 받았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이 시기 율곡은 가정적으로 큰 기쁨을 얻었다. 비록 서자였지만, 이해 6월 장남이 출생했던 것이다. 율곡과 정실인 노씨 부인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다(나중에 율곡이 마흔세 살 때 노씨와의 사이에서 딸을 얻었는데, 그마저도 일찍 죽었다). 그리하여 당시의 관례에 따라 율곡은 소실을 얻고 서른아홉 때 장남 경림

* '만언에 이르는 장편의 글로 임금에게 아뢰는 소'라는 뜻으로, 봉사封事란 옛날 중국 한대에 신하가 임금에게 상주할 때 글을 검은 천 주머니 속에 넣어 봉하여 올림으로써 그 내용이 사전에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한 데서 생겨난 말이다. '만언소萬言疏'라고도 불린다. 자세한 내용은 179쪽 참조.

을, 마흔네 살 때 둘째아들 경정을 얻었다.

그해 10월 율곡은 다시 황해도 관찰사를 제수 받고 부임했다. 충주 목사에 임명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백성의 고통을 현장에서 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율곡은 관찰사에 부임하는 즉시 상소하여 황해도의 민폐를 개혁할 것을 청했다. 즉, 서쪽 변두리의 수자리(국경을 지키는 민병)의 괴로움과, 왕에게 올리는 진상이 너무 번거롭고 무거워 폐해가 있음을 알렸다. 율곡이 부임한 후 백성을 교화하며 민폐를 개혁하고 군정을 바로잡으니 백성이 좋아하고 탐관오리가 일제히 겁에 질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듬해 병으로 황해도 관찰사에서 물러나 또다시 율곡리로 돌아갔다. 이때 율곡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왕도의 학문을 밝히고 은퇴를 결심하다

파주로 돌아와 쉬고 있던 율곡에게 다시 벼슬이 내려졌다. 이번에는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이었다. 율곡은 파주에서 상소를 올려 출사의 뜻이 없음을 표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들것에 실려 대궐에 들어가 사직을 청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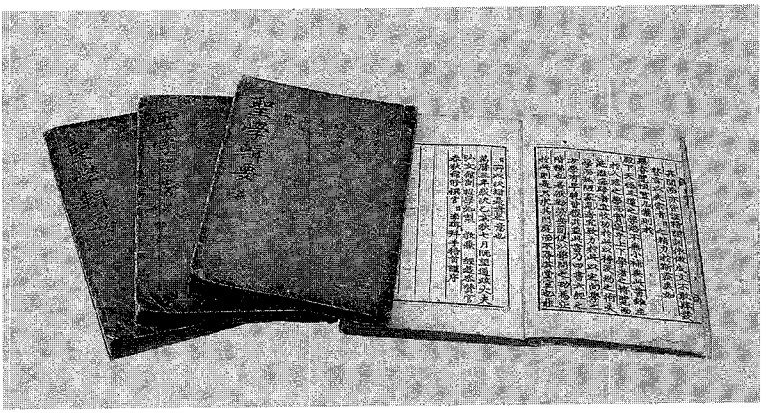
이렇게 조정에 다시 복귀한 율곡은 언제나처럼 왕의 마음을 바로

잡고 시의에 맞지 않는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조정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다. 붕당*의 모습을 완연히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율곡은 갈등이 심화되는 동인과 서인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며 양측을 중재하고자 노력했다. 율곡은 가능하면 양쪽을 화해시켜 나라의 장래를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일념뿐이었으나, 동인 계열에게는 서인으로 지목받고 서인 계열에게도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율곡은 그해 9월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지어 왕에게 바쳤다. 『성학집요』는 선조가 내성외왕內聖外王의 성군聖君이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성인의 학문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사서육경을 기본으로 하고, 선유先儒의 학설과 역대의 사실을 참고로 하여 학문과 정사의 긴요한 사항들을 모은 것이다. 후에 영조는 경연에서 『성학집요』를 교본으로 사용하면서 친히 서문을 지어 그 내용대로 실행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율곡은 『성학집요』를 통해 "천자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수기修己를 근본으로 삼는다"고 주장하면서, 왕도 수기를 근본으로 해야 하며, 왕이라고 해서 항상 기질이 우수한 것은 아니므로 진정으로

* 붕당은 처음에는 학문과 이념, 즉 학풍의 차이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초기에는 붕당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폭이 넓어지고 정치 세력 간의 비판과 견제로 정치를 보다 바르게 행하려는 기능도 가졌다. 그러다가 점차 자기 당의 이익에만 급급해져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왔다.



선조에게 성군을 길을 설파한 『성학집요』

학문을 통한 기질의 변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율곡의 견해는 그가 가진 유교적 평등의식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즉, 율곡이 가진 왕에 대한 관념은 왕을 홀로 권력을 행사하는 독존獨存적인 존재로 이해하지 않고 충분한 수련을 통해 성인聖人, 성왕聖王이 될 것을 요구받는 존재, 사대부의 논리를 따라야 하는 존재였다. 이렇게 율곡은 왕권의 원초적인 한계를 분명히 설정함으로써 자의적인 왕권의 행사를 애초에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건강이 더욱 나빠진데다가 선조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하자 율곡은 마침내 은퇴를 결심하고 파주로 돌아가게 된다. 율곡이 마흔한 살이 되는 해 2월의 일이다.

4. 말년

해주 시대

은퇴를 결심하고 파주로 돌아온 율곡은 조정으로부터 다시 여러 벼슬을 받았으나 모두 사양하고 예전에 눈여겨보아 두었던 해주 석담에 교육의 근거지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관직에서 물러난 율곡은 해주에서 펼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며 실현할 방도를 찾기에 분주했으나, 여전히 파주 율곡리에서 생활했다. 이때 율곡의 가정 형편은 풍족하지 못했다. 아니 늘 빈한한 생활이었다.

그러면서도 해주로의 이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터전으로 10월부터 청계당을 비롯한 거처할 집의 공사에 착수했다. 그리하여 드디어 이듬해 정월에 율곡은 일가가 모두 모여 생활해 나갈 기반을 마련했다. 사당을 세우고 안채가 들어서자 율곡은 맏형의 미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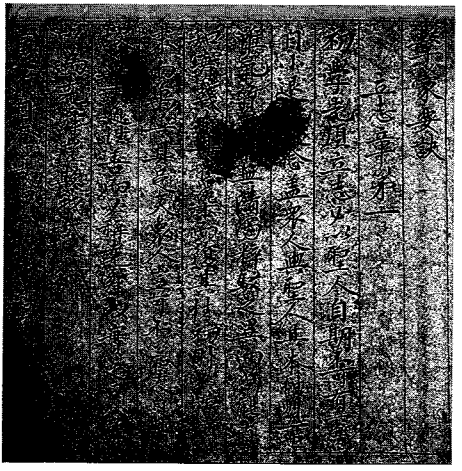
인인 형수 곽씨를 2남 2녀의 자녀와 함께 해주로 불렀다. 그 후 곽씨는 해주에서 집안 살림을 맡았는데, 율곡은 그녀를 늘 부모 모시듯 공경했다.

율곡은 100여 명의 대가족과 함께 살면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함께 살며 서로 경계하는 글'이라는 뜻의 「동거계사同居戒辭」*를 지어 그대로 실천했다. 그러나 여러 식구가 모여 살자면 먹고 사는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이항복이 문집에서 밝힌 것에 의하면, 율곡은 해주에 살면서 대장간을 세우고 호미를 만들어 팔아 생활했다고 하는데, 이는 대가족이 살아가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을 것이다.

오래전부터 교육에 큰 관심이 있던 율곡은 해주에 살면서 본격적으로 교육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격몽요결擊蒙要訣』과 『학교모범學敎模範』을 저술했고, 「해주향약」과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鄕約束」을 만들어 사람들을 교화시키고자 했다. 또한 배움을 구하러 율곡을 찾아오는 많은 이들을 위해 '은병정사隱屛精舍'를 세워 본격적으로 학문을 강론하며 인재 육성에 힘을 쏟았다.

율곡이 관직에서 물러난 마흔한 살이 되던 해 2월부터 마흔다섯 살에 이르는 기간은 그에게 비교적 한가한 시기였다. 물론 재야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완전히 조정을 떠날 수 없었고 그 사이 왕의

* 「동거계사」의 내용은 이 책의 「3부 율곡의 글모음」을 참조.



처음 학문을 접하는 후학을 위해 저술한 『격몽요결』

부름도 끊이지 않아 한양을 오가기도 하고 상소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율곡은 대부분의 시간을 산림거사처럼 유유자적하며 보내며 우계를 비롯한 여러 친구들과 만나거나 서신을 교환하며 지냈다.

다시 출사했으나

벼슬을 사양하며 저술과 후진 양성에 힘쓰던 율곡은 선조의 계속되는 부름을 거절할 수 없어 마흔다섯 살에 다시 조정에 나아갈 것을 결심하고 대사간을 맡았다. 이때 은병정사에서 율곡에게 학문을 배우던 한 문하생이 출사의 이유를 묻자 "이珥는 은자의 무리

가 아니고 경악經幄의 구신이다"라고 대답했는데, '경악의 구신'이란 '경연에서 경서를 강론하는 신하'라는 뜻이다. 이는 율곡은 자신을 은자가 아니라 늘 왕과 나라를 걱정하며 어느 때든 계기가 주어지면 출사할 인물로 자평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아무튼 율곡이 다시 조정에 나오자 영의정 박순은 "율곡이 오랜만에 조정으로 돌아오니 나는 기뻐서 잠이 안 온다"고 할 정도로 반겼다고 한다.

다음 해인 1581년 10월 율곡은 호조 판서로 승진되었고 폐정弊政을 개혁하기 위한 임시기구로 경제사經濟司의 설치를 건의했다. 이처럼 다시금 개혁의 의지를 불태우는 한편, 율곡은 『경연일기經筵日記』를 완성했는데 자신이 벼슬길에 오른 이후 조정에 올린 개인적인 의견 중 요점만 정리하여 후에 법이 될 만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즉, 1565년부터 시작하여 1581년에 이르기까지 17년간의 일을 손수 기록하여 3권의 책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다음 해 정월 이조 판서에 오른 율곡은 계속해서 오래된 폐해를 개혁하려고 열과 정성을 쏟았으며, 12월 병조 판서로 임명되어 황해도와 평안도의 민폐 개혁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또한 이듬해에는 장차 다가올 국난을 내다보고 국가 안위를 위해 곧바로 실천해야 할 여섯 가지 병무를 「육조계六條啓」라는 이름으로 선조에게 올렸다. 율곡은 「육조계」에서 "능력 있고 어진 이를 등용할 것, 군사를 기를 것, 재정財政을 풍족히 할 것, 국방을 든든히 할 것,

전마를 준비할 것" 등을 건의했다.

이 무렵 '10만 양병설'도 주장했다. 율곡이 경연에서 "국력의 쇠약함이 심한지라 십 년도 못 가서 반드시 나라가 무너질 만한 큰 화가 있을 것이니 십만의 병졸을 미리 양성하여 도성에 이만, 각 도에 일만씩을 두어 그들의 조세를 덜어 주고 무재武才를 훈련시켜 교대로 도성을 지키게 했다가 변란이 있으면 십만 명을 합쳐서 지키게 하여 위급할 때 방비를 삼으소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성룡은 "무사할 때 군사를 양성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만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반대한 것을 비롯하여 다른 관리들도 율곡의 의견을 지나친 염려라고 하면서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율곡은 삼사의 탄핵을 받고 공직에서 물러나 율곡리가 갔다가 다시 해주 석담으로 내려갔다. 이듬해 율곡은 다시 이조판서에 복귀했으나 이미 병이 깊어 있었다. 이때부터 자리에 누워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두 달 동안에도 율곡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랏일을 걱정하며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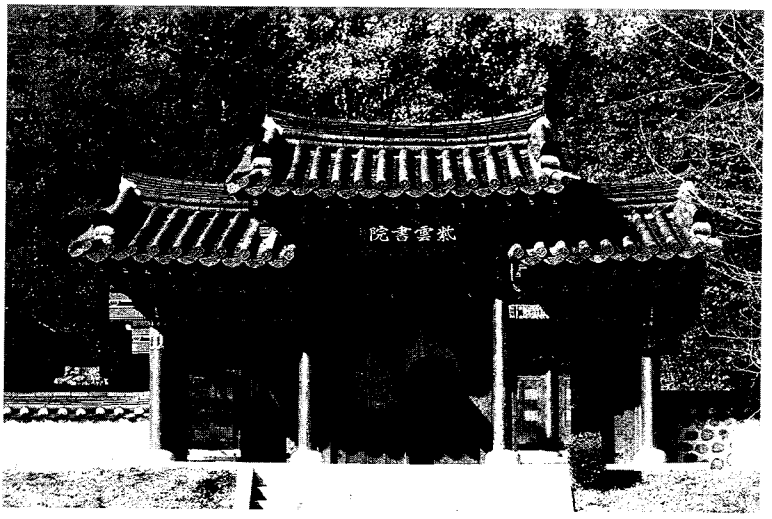
율곡이 세상을 뜨기 이틀 전인 정월 14일 순무어사巡撫御史 서익徐益이 임금의 명을 받고 북쪽 변방 백성의 생활을 둘러보고 위로하기 위해 떠나면서, 병조 판서를 지낸 율곡을 찾아와 변방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율곡의 건강을 걱정한 가족과 제자들은 "병이 조금 차도가 있는 중이므로 만나는 것을 사양하시라"고 간절히 말했다.

그러나 율곡은 "내 몸은 단지 나라를 위한 것일 뿐이다. 이 일로 인해 병이 더 심해진다 하더라도 역시 운명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위의 청을 물리치면서 "이는 나라의 대사이니 이 기회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다"며 일어나 앉아 동생 우에게 자신의 말을 받아쓰게 했다. 이것이 「육조 방략」으로, 율곡이 세상을 뜨기 전에 남긴 마지막 글이 되었다.

시름시름 앓던 몸을 추스르지 못하던 율곡은 정월 16일 새벽, 부축을 받고 일어나서 손톱과 발톱을 자르게 하고 의건衣巾을 단정히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숨을 거두었다. 당시 율곡의 나이는 마흔아홉 살이었다.

율곡의 부음이 전해지자 선조는 우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애통해 했으며 수라상에 고기를 올리지 못하게 하고 "어진 재상이 서거하니 내 마음이 매우 아프다"면서 사흘 동안 조회를 열지 않을 것을 명했다. 또한 예관을 보내어 "나라를 위해 몸이 여위도록 정성을 다해 애쓴 경이야 무엇이 슬프리오? 큰물 가운데서 노를 잃었으니 나야말로 애통하도다"라고 비통함을 전했다. 또한 각지의 선비들은 모두 친척 상을 당한 듯 슬프게 울지 않는 이가 없었고 백성도 눈물을 흘리며 애도해 마지않았다.

그 후 1623년(인조 원년) 율곡은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다음 해



율곡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지운서원

문성文成*이라는 시호諡號를 받았다. 그리고 1681년(숙종 7) 문묘에 배향되었다.

위대한 인격

율곡은 평소에 몸차림을 간소하게 했다. 마음씨가 맑고도 시원

* 도덕박문道德博聞을 문文이라 하고, 안민입정安民立政을 성成이라 하는데, '도덕과 사물을 널리 들어 통했고, 백성의 안위를 살펴 정사의 근본을 세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게 탁 틔어서 언행과 표리가 언제나 한결같고, 다른 사람과 밀담을 하거나 수군거리는 법이 없었다. 친소를 막론하고 누구의 말이나 잘 들어주는 성미여서 어린아이나 우매한 사람도 모두 거리낌 없이 그를 대할 수 있었고, 또 마음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 어떤 이는 율곡을 가리켜 "광풍제월光風霽月*이요 청통쇄락淸通灑落**"이라는 말했는데, 이는 율곡의 사람됨을 가장 잘 그려낸 표현일 것이다.

이처럼 율곡은 사람을 용납하는 도량이 넓었다. 이조 판서를 지낼 때의 일이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어찌 많은지 밤이 깊어서야 저녁 식사를 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동생 우가 보다 못해 "손님이 너무 많아 건강을 해칠 것이 염려됩니다"라고 말하니, 율곡은 "만일 손님 대하기를 꺼린다면 해주 석담 같은 조용한 시골에서나 살 일이다. 어찌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사람됨을 보고 나서야 인재도 바로 쓸 수 있는데 말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또 언젠가는 어린아이들이 와 놀다가 그의 서재에서 중요한 물건을 훔쳐낸 일이 있어서 집사람들이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율곡은 어린아이들을 불러들여 한 번 잘못은 고치

* 갠 날의 달과 맑은 바람이라는 뜻으로, 도량이 넓고 시원시원함을 이르는 말.
** 아무 거리낌이 없는 맑고 깨끗하다.

면 된다고 훈계하고는 계속 놀러 올 수 있게 했다고 한다.

율곡은 착하고 맑은 심성과 더불어 일을 단행하는 용기도 가지고 있었다. 열한 살 때 아버지의 병환이 위독하여지자 팔을 찔러 피를 내어 병을 낫게 한 일도 있었다. 또 한 번은 막역한 친구 우계와 함께 화석정 아래 강에 배를 띄우고 노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물결이 높아졌다고 한다. 우계가 당황하여 "어찌 하면 좋을까"고 물으니 율곡은 "우리가 탔으니 염려 없다"고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니, 율곡은 지인용智仁勇의 덕을 겸비한 인물이었다.

율곡의 총명함을 누누이 말한 바 있지만, 독서량 또한 엄청났다고 한다. 그리하여 어떤 질문에도 곧바로 대답할 수 있었으며 그 대답 또한 모두 이치에 맞았다고 한다. 우계가 언젠가 "나는 책을 볼 때 단번에 일곱 여덟 줄밖에 못 본다"고 하자 율곡은 "나도 단번에 십여 줄밖에 못 본다"고 대답할 정도로 비범한 독서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책을 읽곤 했다 한다.

그뿐만 아니라 율곡의 글은 일부러 만들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었고 속에서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는 것 같이 쉽고 명쾌했다. 율곡은 "마음이 도를 통하면 저절로 글이 되지만 마음이 도에 통하지 못하면 글을 지어도 어색하게 되는 법이다. 그러기에 글 짓는 공부보다는 도학 공부가 앞서야 된다"고 말했다고 하니, 그가 남긴 웅심雄深

하고도 활달한 문장은 마음의 수양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의 인간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율곡은 사모의 마음으로 산 사람이기도 했다. 사임당 신씨가 죽자 애통함을 이겨낼 길이 없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이 어머니에게 바쳤던 순정을 다시금 외로이 사는 외할머니에게 쏟았다. 서른세 살 되던 해에는 벼슬을 받았으나 취임하지도 않고 곧바로 강릉으로 외할머니를 뵈러 갈 정도였다. 왕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공무의 자리를 떠났다고 하여 물의를 빚기도 했지만, 외할머니에 대한 지극한 사모의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그 정이 편협하지도 않았다. 집안 어른에 대한 태도가 한결같이 그러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도리에 맞는 일이었다. 율곡의 맏형 선이 일찍 세상을 떠났으므로 홀로 지내는 형수를 정성껏 어른으로 모시고 조카들의 뒤를 돌보아 주었다. 둘째 형 번은 본래 세상사에 관심이 없고 가끔 체면조차 돌보지 않는 인물이었다. 당상의 높은 벼슬에 있는 율곡을 마구 불러 곧잘 잔심부름을 시켰다. 그러나 율곡은 추호도 꺼리는 빛 없이 여러 제자들이 자리에 많았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몸소 시중을 들곤 했다. 제자들이 보다 못해 "선생의 신분으로서 그것은 지나친 공손함이 아닐까요?"라고 하면 "부형 앞에 벼슬의 지위가 무슨 상관이냐? 부형 앞에서는 지나친 공손이 있을 수 없다. 형님이 세상을 떠나시

면 예를 지키려 해도 안 될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이 둘째 형은 율곡이 밖에서 돌아오면 "오늘은 무슨 글을 지었는가" 물어 그것을 손수 기록하곤 하는 우애가 있었다. 율곡의 시나 글이 후세에 전하게 둘째 형의 덕이 컸다고 한다.

율곡의 처가는 본래 부유하여 한양에 집을 사서 율곡에게 준 일이 있었다. 그러나 율곡에게는 빈한한 친척이 많았다. 그는 모처럼 사 준 집을 팔아 가난한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어 살림에 보태 쓰도록 했다. 또한 해주 석담에서 백 명 가까운 대식구가 모여산 것은 친척의 괴로움을 돌보아 주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그런 만큼 자신의 생활 형편은 언제나 펴질 날 없이 죽으로 끼니를 이어가기조차 곤란한 때도 적지 않았다. 양식이 떨어져 점심을 굶는 때도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이자 재령 군수인 최립이 쌀을 보냈다. 그러나 율곡은 이것을 받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모처럼 고마운 생각으로 보낸 쌀을 왜 받지 않는가?" "이것은 관가의 물건이니 받으면 죄가 된다. 옛 친구의 사사로운 물건이라면 안 받을 리가 있겠는가?" 이것이 율곡의 대답이었다.

율곡이 부제학을 그만두고 파주로 내려가 있을 때의 일이다. 최해성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식사를 같이하면서 찬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 궁핍한 괴로움을 참느냐?"고 물으니, 율곡은 "날이 저물면 찬 없는 식사도 거북함을 모른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율곡의 뇌리에서 사라질 줄 모르는 것은 이 나라 백성의 일이었다. 마흔여덟 살 되던 해(1578년) 6월 어수선한 정계를 떠나 파주로 가면서 읊은 시 한 편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율곡의 비창한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사방은 멀리 검은 구름으로 캄캄한데
주천에 드높이 햇빛은 밝기도 하오.
외로운 신하의 한 줄기 눈물
한양성을 향하여 뿌리옵니다.
四遠雲俱黑 中天日正明 孤臣一掬淚 灑向漢陽城

그러기에 마흔아홉의 아까운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꿈속에서 말하듯 되풀이한 것은 오직 나랏일뿐이었다.

율곡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지한 백성이나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 애통해 했다고 한다. 율곡의 장례를 지내던 날에는 한양에 사는 백성의 횃불이 멀리 수십 리나 연하여 뻗쳐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슬퍼했다고 한다.

그러나 율곡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집에는 아무런 유산도 없었다. 염습에 쓸 수의조차 없어 친구들이 구해 예를 치를 정도였다고 한다. 이처럼 율곡은 경상卿相의 높은 벼슬에 있었건만 청빈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한양에는 유족들이 거처할 만한 집 한 채도

없었다. 하도 그 정경이 딱해 친구와 제자들이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해서 유족의 곤경을 면하게 해 주었다고 한다.